

## 2003년 학회 일을 마치고...



60년대 후반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Dustin Hoffman 주연의 영화 “졸업 (The Graduate)”의 첫 장면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주인공을 위한 환영 파티에 손님 중 한 명인 아버지의 친구가 주인공에게 장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를 충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단 한마디로 “plastics”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28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분자 연구를 시작하며 맺은 고분자와의 인연은 그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고분자화학을 선택하여 박사학위도 고분자로 받고, 학위 후에도 미국의 연구소에서 고분자를 연구하다가, 10년 전 한국에 돌아온 후 학교에서 고분자 과목을 가르치며 고분자 관련 연구를 하고, 고분자학회에서 일을 하며 계속 인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회 국문지인 “폴리머”를 3년 동안 편집하며 얻은 학회에 대한 애정을 올 한해 학회 전무이사를 하며 마음껏 쏟아 부은 느낌입니다. 지난 1월 학회 운영을 시작하며 3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학회운영, 둘째 심포지움 중심의 학술대회 운영, 그리고 학술지 위원회의 위상 강화였는데,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호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온라인 결제 등 인터넷을 이용한 학회운영으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고분자 아카데미, 기기분석 등)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학회 사무실의 보스 김화순 실장, 그리고 이기욱 과장과 새내기 김보경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분자 아카데미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가 신청하여, 강의실을 바꾸고 보조의자를 급하게 설치하며 준비했는데도 부족하여 현장에서 결국 등록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고, 기기분석에서도 많은 수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상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학회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은 조직이사 이준영 교수를 비롯한 사업 관련 기획이사들의 노력이 밑받침이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심포지움 중심으로 운영한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도 등록인원이 계속 1,000명을 넘었고, 발표논문 수도 800편 가까이 되어 포스터 발표를 세 번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커다랗게 성장해버린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세대학교와 부경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성심껏 수행한 학술이사 조길원 교수를 비롯한 기획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는 저에게 유난히 바쁜 한 해였습니다. 고분자학회 일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내 연구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여 두 가지 일이 모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습니다. 1년간의 고분자학회 전무이사직을 수행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여러 회원들과의 교류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한해 학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신 학회의 모든 임원들과 이영관 재무이사를 비롯한 15명의 운영이사들,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지난 1년간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한국고분자학회의 끝없는 발전을 기대합니다.

<기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송기국>